

전북형 MICE산업 육성 종합플랜 나왔다

전북 MICE산업 여건·계획후보지 장단점 분석 도출
전시회·박람회 30건, 국제회의 280건 개최 목표 설정

전북형 MICE(회의·전시·관광·컨벤션)산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과 중장기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거론되는 6개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후보지 중에서는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가 최적지로 분석됐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전북형 MICE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해 5개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2023년까지 전국대회 국제회의 개최실적을 현행 3%수준에서 5% 시장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전시 박람회 30건, 국제회의 280건 개최(목표)를 추진키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전라북도 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해 융복합 미래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육성계획에 대한 용역을 8월 말 마무리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국내·외 MICE산업 동향과 전북의 MICE 산업 여건분석, 기존에 검토됐던 전시컨벤션센터 계획 후보지에 대한 장단점 분석, 전북 MICE 수급분석 등의 조사와 진단이 이뤄졌다. 전시컨벤션센터 추진방안과 함께 컨벤션부류도 필요성 등이 검토됐고,

향후 전북형 MICE 콘텐츠 발굴, MICE 유치·홍보, 국내·외 교류협력, MICE 전문인력 양성 등의 세부 실행계획을 통한 전라북도 MICE산업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시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특히 전북형 MICE 목적지 조성을 위하여 전통문화와 컨벤션의 만남, 가고 싶은 지역, '전북'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 MICE산업 기반 조성 ▲ MICE콘텐츠 개발 ▲ MICE유치 및 홍보 ▲ 국내외 교류 및 협업 증대 ▲ MICE전문 인력 양성 등 5가지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또 세부추진과제 실천을 통해 현재 전국대회 국제회의 3%수준의 개최실적을 2023년 전국대회 5%의 컨벤션 시장으로 확대 창출, 전시·박람회 30건, 국제회의 280건 개최 목표를 설정했다. 그 동안 전북에서는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6개 계획 후보지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전라북도 MICE산업 종합계획 수립' 용역추진 과정에서 기존에 전시컨벤션센터 건립부지로 검토되었던 이들 6개 후보지에 대해 부지별 특성

과 내·외환경 등을 포함해 장단점과 우선순위를 검토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전문가(연구원 교수) 9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시정방법(AHP)을 활용하여 부지별 평가지표로 입지타당성, 접근편리성, 부지규모, 컨벤션센터의 독자성, 시설 복합화 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가치제와 상대적 우위 도를 측정했다. 검토 결과, 전시컨벤션센터는 도시외곽보다는 도심에서 호텔, 쇼핑몰, 공연장, 박물관 등이 밀집하여 집적효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과 함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가 다른 부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주종합경기장의 경우 배후도시인 전주의 기존 상권과 인프라가 조성되어 있고,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컨벤션센터의 기능을 다각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경우 도시재생방안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미 기존 연구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된 부지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는 진단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이번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부지별 우선순위에 따라 시군과 긴밀하게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전시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가석방 늘리고 '재택 복역' 추진한다... "과밀 수용 해소"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재범 방지 필요
법무부 "별도 투자 없이 현 시스템으로 가능"

정부가 '재택 감옥'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가석방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전자감옥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 및 학술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옥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하는 한편 가석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재범방지 수단이 필요하다는 게 추진 배경이다. 법무부는 현재 전체 25%에 불과한 가석방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하고 형집행정지 85%에서 70% 이하로 낮춰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우려를 불식하

기 위해 전자감옥을 부과하는 가석방적용 대상을 현행 성폭력, 살인 등 4대 특정범죄에서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해당 방식은 재택감옥을 통해 24시간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운용될 전망이다. 출어든 형집행을 만큼 재택감옥을 통해 사회안정화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응급치료, 직업훈련 등을 위한 외출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석방 초기에는 재택 전자감옥 및 집중 보호관찰을 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집행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석방 조건부 전자감옥 제도는 실질적 가석방 관리

수단으로 세계 30여 국가에서 활용 중"이라며 "위치추적 전자감옥제도 운영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별도 투자 없이 현행 시스템으로 안정적 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이달부터 훼손이 보다 어려워진 일체형 전자발찌를 보급,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정 거리 미만으로 가까워질 때 경보가 울리는 피해자 보호장치도 개발 중이다. 한편 법무부는 전자감옥제도 시행 이후 성폭력범죄 재범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전자감옥 대상자는 8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성폭력범죄 재범률은 제도 시행 전 14.1%에서 1.8%로 감소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선진기술을 적용해 더욱 발전된 미래의 전자감옥제도 시행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뉴스

'내 고민을 풀어줘' 전라북도 청년축제

도내 청년들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축제의 장 열려
오늘부터 이틀 동안 전주 옥토주차장서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18 청년축제'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전주 옥토주차장(구 KT&G)에서 열린다. 두근두근 청년심혈심이라는 주제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그들 스스로 풀어보는 8개의 프로그램과 가을밤을 풍성하게 해 줄 청년예술인들의 문화공연, 전시체험 등이 있을 예정이다. '농촌', '주거', '혁신', '문화' 등 4가지 주제에 따른 주요 프로그램으로 ▲청년농촌 기술센터, ▲농부 스토리 펀딩, ▲청년부동산, ▲House Escape(탈방), ▲윌트백, ▲야 너두, ▲거리를 바꾸는 청년들의 작은가게, ▲요즘 어때? 마음사 진관 등으로 구성, 오후 3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청년농촌 기술센터'는 농촌에 대한 공공증과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프로그램

으로 농촌에 대한 관심 분야를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상담해준다. '농부 스토리 펀딩'은 지역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펀딩을 일시적으로 체험해 봄으로써 농촌 청년과 도시청년을 연결 해준다. '청년부동산'은 막대한 내 집 마련의 고민을 풀어 주는 주거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부동산, 저축 대출 등의 정보를 높이 형태로 제공하며, 'House Escape'는 방탈출 게임을 통해 주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 '윌트백'은 청년들의 최고의 고민거리 취업과 창업에 대한 혁신 프로그램으로 직장과 직업의 기로에 선 청년 스스로의 결정을 재관이라는 형식의 과정을 통해 꿈과 직업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게 유도한다. '야 너두'는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 구체화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함께 아이디어를 찾는 법) 기법으로 풀어간다. '요즘 어때? 마음사진관'은 청년들의 다진 마음을 치유해 줄 있는 문화프로그램으로 상담가와 상담할 때 나오는 참여자들의 진솔한 표정들을 사진으로 담아 액자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거리를 바꾸는 청년들의 작은가게'는 추억의 골목길과 구도심의 매력을 찾아보고 핸드메이드 기념품을 만들어본다. 부대행사로는 전라북도 청년들의 삶과 활동을 전지로 경험해 보는 '전라북도 청년보고서', 4~50대 기성세대의 청년 시절 음악을 체험해보는 '청년 타임머신'이 운영된다. 또한 축제의 장을 더 풍성하게 해 줄 문화공연으로 퓨전 국악밴드 '문화포럼 나니네', 관소리와 오페라를 접목한 판페라 그룹 '사과나무', 가을밤에 더없이 어울리는 모던포크 듀오 '이상한 계절'의 공연이 7일 저녁 7시에 펼쳐진다. /송효철 기자



전시 상품 살펴보는 라승용 농민청장 6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상품 품평회에서 라승용 농촌진흥청장이 전시된 상품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알기 쉬운 생활 법령 교실' 근로 현장 속으로 가다

전북도는 4월부터 10월까지 8회에 걸쳐 '알기 쉬운 생활법령 교실'을 운영하여 도민의 법적인 어려움을 해소를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7회차는 6일 전북테크노파크 대강당 근로 현장 속에서 근로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노동법 관련 생활법령 교실과 이동 희망법률상담실이 연계 운영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시켰다. 현장에 초청된 강사는 노동부 소속 박애스터 사무관으로 노동법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사업주가 궁금해 하고 필요로 하는 내용만을 뽑은 강의로 회사생활 관련 임금, 노동시간, 산재는 물론 이후의 근로 여건변화, 정책의 방향까지 파악할 수 있는 맞춤형 근로현장의 공공증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로 더욱 큰 호응을 받았다. 전북도에 따르면 '알기 쉬운 생활법령교실'은 총 8회에 걸쳐 574명의 주제로 8명의 전문 강사를 구성, 법령해설과 사례중심 교육을 실시 해 왔으며, 그동안 재산소유 관련 법령등 3가지 주제로 6차례 교육을 통해 300여명이 참여하여 농치기 쉬운 생활속 법령습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성 기자

2018 균형발전박람회 전북도 관심 집중

국내 최대의 균형발전 축제이자 소통의 장인 2018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가 9월6일~9월8일 까지 3일간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에 전시관을 운영하여 '이름다운山河 여행체험 1번지 전라북도'를 주제로 문화&CT 융합 여행체험 산업 육성과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등 주요 정책들을 홍보하고,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군산 고군산군도, 진안 구봉산 등 전북의 아름다운山河와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을 누빌 수 있는 '전북 투어패스'는 관람객에게 전북여행의 매력을 전달했다. 개막식은 균형발전위원장을 비롯하여, 자치분권위원장 한병도 정무수석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 영상관람을 시작으로 개막 퍼포먼스와 격려사 등으로 진행됐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